



거창고등학교
학보사

173rd 거고 학보

발행인 : 박치용
주 간 : 박진석
편집국장 : 배민승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7]



배다솜 선생님 말씀

거창고등학교의 비밀을 아시나요?

10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거창고등학교에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놀기만 좋아하는 제가 처음으로 각종 문제집을 사고, EBS도 챙겨듣고, 독서실도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은 제 성적이 택도 없다는 걸 아셨지만 그래도 원서 쓰겠다고 해맑게 말하는 저에게 두말없이 써주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어렵듯이 납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떨어졌답니다. 아마 생애 처음으로 어딘가에서 탈락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고 돌아 10년이 지났고,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꿈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018학년도 학보에 실릴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많이 부담스럽고 당황했지만 이미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저에겐 꿈이었던 거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 정말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 학교의 비결은 뭘까, 무엇이 다른 걸까.

우리 몸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를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하도록 하는 세포를 뜻합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생명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 뇌의 '같이 느끼고 따라하기'를 가능케 만들어주는 이 거울 뉴런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창고등학교는 이 거울 뉴런이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최고의 3년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고가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그런 예쁜 시기에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거울이 300개나 있으니까요. 좋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자꾸만 보이고 좋은 쪽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친구들이, 상황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교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보며 생활면에서, 관계면에서, 꿈을 향한 노력에 있어서도 많이 배우고 반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좋은 거울들로 가득 찬 이곳이, 모두에게 매순간 행복한 공간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종종 인간은 자신보다 힘든 이를 보며 위로받곤 하니까요. 거창고등학교는 어쩌면 타인에게서 나를 위로받기엔 적합하지 않은 학교일 것입니다. 모두 나보다 나아보이죠. 공부가, 인생이 자신보다 쉬워 보이고 빠른 것 같고,,, 뭔가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모두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속도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게 되는 건 우리가 다른 이에게서는 좋은 점만을 찾아내는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사회가 정해 놓은 시기 역시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대학 입학은 스무 살, 취직은 20대 중후반, 결혼은 30대 초반? 같은 것들 말이죠. 대체 누가 정한 건지....

다른 이를 기준으로 돌아가 있는 레이더망을 나에게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어찌되었든 나는 '나'를 위해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차피 한 번 뿐인 나만의 '내 인생'이잖아요. 사회가 정해 놓은 시기에 맞추어 늦는다고 나를 비난하기에는, 좋은 인생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이 친구들을 마주하며 나를 깎아내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3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로 충분해요. 누구도 다른 이의 삶이 서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요.

온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거창고등학교 개정 교칙

<학생회 생활 규정 개정 확정 결과>

1. 레드라인

- ① 레드라인: 실내화(아래 기준 참고)를 신고 다닐 수 있는 범위
- ② 레드라인의 범위: GS25, 세븐일레븐, CU, 호수
- ③ 출입금지 구역: 거창여중, 거창여고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입을 제한
- ④ 실내화와 실외화의 구분 기준
 - (1) 실내화: 슬리퍼, 흰 실내화, 실내용으로 제작된 신발 (ex. 실내용 부츠, 고무신)
 - (2) 실외화: 슬리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신발 (ex. 운동화, 쪼리, 샌들 등)
 - (단, 실내용으로 제작된 신발은 제외)

2. 복장

- ① 반바지의 길이는 허벅지의 1/2로 제한
- ② 치마 허용 (단, 길이는 무릎 위 3cm로 제한, H치마 제한)
- ③ 수면바지(잠옷), 민소매, 미니스커트, 핫팬츠, 속이 비치는 바지(ex. 일부 냉장고 바지) 제한
- ④ 축제 때 예외사항 없음
- ⑤ 반지, 목걸이 허용

3. 두발

- ① 길이 제한 없음
- ② 염색, 파마, 탈색, 헤어 젤 사용 제한
- ③ 고데기, 스프레이, 무스 허용

4. 음식물 섭취 및 소지

- ① 섭취 가능 여부에 따른 음식물 분류
 - (1) 섭취 가능 식품
 - : 급식소에서 제공된 음식물 (단, 훌릴 위험이 높은 셀프 샌드위치 등과 껍질이 남는 과일은 예외적으로 제한)
한약, 홍삼, 포도즙 등 건강식품, 사탕, 초콜릿, 낱개포장과장, 빵, 자체 뚜껑으로 밀폐가 가능한 과자, 캔/병 음료, 유제품류(ex. 우유, 요플레), 믹스커피, 차 등 종이컵을 사용하는 식품, 아이스크림
 - (2) 섭취 불가능 식품
 - : 조리가 필요한 식품(ex. 컵라면, 삼각김밥), 봉투에 든 과자(ex. 포스틱, 치토스)
- ② 섭취 및 소지 가능 시간
 - (1) 섭취 가능 시간: 수업 시간, 야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단, 동아리 활동 시간은 예외적으로 허용)
 - (2) 소지 가능 시간: 항상
- ③ 섭취 가능 여부에 따른 장소 분류
 - (1) 섭취 가능 장소
 - : 교실, 동아리 고유의 장소(ex. 너울막실, 학보사실, 방송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만 허용
 - (2) 섭취 불가능 장소: 복도(단,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은 예외적으로 허용), 화장실, 수학/사회과 교실, 별관(ex. 독서토론실, 도서관, 과학실 등)
- ④ 시험기간에도 위와 같이 적용
- ⑤ 밀폐용기(ex. 락앤락) 사용 시 모든 종류의 과자 허용

| 학생회 쓴 |

생생 거고동



액티오 연극

12월 17일 오후 7시, 장미극장에서 거고 동아리 ACTIO의 연극 무대가 있었다. ‘사람향기’라는 제목의 연극은 주연 조예서, 정유진 학생과 감독 이종혁 학생이 이끌어 나갔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사춘기 소녀 향기는 엄마의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향기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 연극에서는 정겨운 사투리 연기가 인상깊었으며 귀남이와 향기 사이의 풋풋했던 첫사랑 이야기, 국회의원이 되는 이장님 이야기, 슈퍼스타가 되는 백수 이야기 등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중간중간의 웃음 포인트와 감동적인 요소들로 관객들은 울고 웃으며 지루할 틈 없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었다. 탄탄한 스토리 구성과 뛰어난 연출력, 소품, 조명 음향 등의 보이지 않는 노력 또한 연극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사람향기’는 큰 환호성을 자아내며 막을 내렸다.

| 김아정 기자 |

성탄절 예배

지난 12월 22일,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교생이 강당에서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아스트라의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연주 후 김지혜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보성 목사님은 ‘달의 나라에 찾아오신 햇님’이라는 제목으로 동화 같은 분위기의 설교를 하셨다. 설교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문선영, 배준희 학생이 낭독하여 지금까지의 설교와는 다른 특별함을 주었고, 설교 후에는 간단한 퀴즈도 주어졌다. 목사님은 로마같이 폭력과 살육으로 이루어낸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고, ‘오늘날의 영광을 경제력, 무력, 정치권력으로 돌리는 문명이 얼마나 큰 폭력과 미움을 낳는가?’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깨야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인류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강조하시며 설교를 마쳤다.

| 김정훈(3) 기자 |



기학 선거

2017년 12월 27일, 강당에서 예배 후 기학 선거가 있었다. 밀알순에서 조성은, 겨자순에서 채세민, 포도나무순에서 성찬규, 샘순에서 김혜준 학생이 임원으로 나와 간단한 연설을 한 후 바로 투표가 진행되었다. 개표는 3학년 서한얼 선배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 투표 결과 김혜준 학생은 24표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김혜준 학생과 성찬규 학생에 대한 재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44표를 얻은 김혜준 학생이 기학 회장, 성찬규 학생이 기학 부회장이 되었고 총무로 조성은 학생, 서기로 채세민 학생이 임명되었다. 임원들은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각 임원들의 장기자랑이 있었고, 현 기학회장 이경주 학생의 마무리 기도로 기학선거는 마무리 되었다.



| 정희성 기자 |



독후감 발표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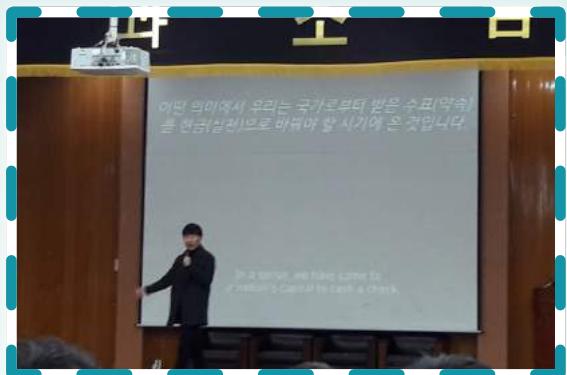
2017년 12월 28일 거창고등학교 강당에서 독후감 발표 대회가 열렸다. 독후감 발표에 앞서 교감 선생님께서는 삶의 목적, 삶의 수단, 삶의 치유, 삶의 무기로써의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 또 우리의 윤택한 삶을 위해 독서는 꼭 필요하다며 독서를 많이 하고 독후감도 많이 쓰라고 하셨다. 이어서 사회자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 2학년 각 반의 대표로 나온 학생들은 철학 분야의 ‘구토’부터 자연 과학 분야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까지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발표하였다. 그 덕에 관중석의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여러 방면의 책들을 접해볼 수 있었다.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2-2의 김예진 학생이 ‘GMO 사피엔스의 시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김혜민 기자 |

영어말하기 대회

12월 29일, 영어 말하기 대회가 1학년 3반 전주호, 심산 학생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수준 높은 예선을 거쳐 본선으로 올라온 학생들은 엠마 왓슨의 연설, ‘비상 상태 시 행동요령 교육’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로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몇몇 참가자들의 ppt 등과 같은 시각적 자료는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고, 발표자들의 노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2학년 2반 윤동희 학생은 마틴 루터 킹의 ‘나는 꿈이 있어요.’라는 연설을 통해 관객들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관객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장한석 기자 |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 3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거고에 입학하기 전 설레고 긴장했던 날들을 기억하시나요? 저희 학보사에서 신입생들의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생생히 학보에 실기 위해 예비 소집 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거고에 첫 발을 내딛을 68기 신입생들의 포부와 여러 감정들을 들으러 가봅시다!!

Q, 거고 왔을 때 첫 느낌은?

- A₁**, 뭔가 좀 무서운데 친근한 느낌이 있어요. (허나영/거창)
 학교가 좀 낡았다. 예상한 것보다 운동장이 좀 작네요. 그 정도? (하요한/부산)
 자유분방한데 엇나간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최선재/부산)
 드디어 왔구나!! 좋았어요. 옛날부터 오고 싶어서 인상은 좋았어요. (이시후/거창)
 오면서 빈 선생님들이랑 선배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셔서
 여기서 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호수아/서울)
 처음에 되게 어... 되게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 (박찬영/파주)
 어... 제가 거창여중을 다녔기 때문에 거고가 항상 보였는데 뭔가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연주/거창)
 왔을 때, 형들 농구하고 있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그랬어요. (구건모/사천)
 소문 듣고 엄청 세련되고 멋진 학교여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생각보다 소박해서 '오~ 멋지다' 생각했어요. (유연주/거창)



Q₂, 입학 후 가장 기대되는 것은?

- A₂**, 기숙사 생활 하는 거요. (허나영/거창)
 일단 반 친구들! 그리고 예술제? 봄 예술제 같은 거.... (하요한/부산)
 기숙사 생활이 약간...?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게 기대가 돼요. (최선재/부산)
 예술제요! (이시후/거창)
 기숙사 친구랑 새로운 반 친구들 만나는 게 기대돼요. (이호수아/서울)
 그냥 학교생활이요.... (심기영/부산)
 축제가 많다! 그래서 축제가 젤 기대되는 것 같아요. (박찬영/파주)
 봄예술제요! (조연주/거창)
 그 축제 많이 하던데... 네... 그거요. (구건모/사천)
 역시 축제겠죠. 그리고 토키몰이 하고 싶어요. (유연주/거창)



Q₃, 거고 생활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A₃, 제가 여기서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친구들한테 거고에서

내신 100% 받는다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좀.... (허나영/거창)

진영에서 혼자 왔으니까 친구 같은 거요. (박정임/진영)

아무래도 공부랑 친구 관계요. 처음 보는 애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친구 사귀는 게 걱정이 돼요. (이시후/거창)

기숙사요. (심기영/부산)

공부가 조금 딸릴까봐 걱정돼요. (박찬영/파주)

아무래도 아예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걱정되고, 새로운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ㅎㅎ (이호수아/서울)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많이 뒤쳐질까봐 걱정이에요. (조연주/거창)

그냥 걱정되는 건 딱히 없는데요. (구건모/사천)

성적에 대한 제 멘탈이 좀 걱정돼요. (유연주/거창)

친구들 사이는 괜찮을 것 같고, 고등학교 공부가 좀 걱정될 것 같습니다. (하요한/부산)



Q₄ 졸업하기 전까지 거고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A₄, 어... 전학은 안 가려고요. 벼텨 보려고 ㅎㅎ (허나영/거창)

음... 전교 5등 안에 들어보기? (하요한/부산)

인간성을 좀 개선해 보겠다! ㅎㅎ (최선재/부산)

꼴찌는 하지 말자! (이시후/거창)

그냥 책 좀 많이 읽자. (구건모/사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요. (유연주/거창)

그냥 아무 탈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졸업하고 싶습니다. (박정임/진영)

재밌게 놀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박찬영/파주)

아직 없어요 (심기영/부산)

어... 음... 거고에서 제가 좀 더 거고를 알리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요. (이호수아/서울)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박시균/울산)

제가 포기를 빨리 하는 편인데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어요. (조연주/거창)



신입생들의 풋풋하고 상큼한 인터뷰 내용 너무 귀엽지 않나요?

거고에 처음 입학했을 때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길 바라며,

3년 동안 거고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를 응원하며

68기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ㅎㅎ 저는 이번에 입학한 엄호빈입니다!!

어 안녕~~^^ 난 예진이라고 해.

S#1 동아리

와, 무슨 동아리가 이렇게 많아?

거고 동아리는 총 3종류가 있어!

저는 학보사에 지원하기로 정했는데, 다른 것도 필요한가요?

학보사는 CA 시간에 모이는 동아리야. 필수는 아니지만
네 진로·적성에 맞는 교과 동아리, 봉사 동아리도 고려해봐.

CA, 교과, 봉사 동아리 3종류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깊이 고민해서 지원해볼게요.

S#2 아침밥 생활화

호빈이, 너 어제도 교목실에 왔지 않니?

아잉 선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아침밥은 꼭 챙겨먹어야지.
우리 학교 아침밥은 더욱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준다구!

아.... 내일부터라도 꼭 챙겨 먹어야겠다.
아 근데 선배도 어제 왔지 않아요???

흠흠... 요새 늦게 일나서....

아침밥은 꼭 먹어요~~~

롤러코

S#3 행사

봄예술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봄소풍도 가요?

거고는 행사가 많기로 유명한 학교야.
우리끼리는 거창예고라고도 할 정도지.

이렇게 행사가 많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지 않나요?

행사가 많다고 놀기만 하면 1년이 의미없이 지나가버려.
하지만 우리 거고인은 다르다구!!

정말요? 거고인은 어떤데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그런게 바로 거고인이지!!

와, 선배도 갑자기 달라 보여요!

즐길 땐 즐기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거고인이 됩시다~!

S#4 외식신청

선배님 같이 외식가요~~~!!!

그럴까? 아! 근데 외식신청은 했니?

외식신청이요? 그게 뭐에요???

외식신청을 모르다니... 아직 진정한 거고인이 아니군....
외식신청이란 외식을 가기 전에 이름과 같이 가는 사람의 수를
명단에 적는 거야. 저녁잔반도 줄이고 얼마나 좋다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당장 적으러 가요~~~

모두 다함께 저녁잔반 줄이는 외식신청 합시다!!!

한나눔터

한나눔터 먹거리 장터



12월 21일 날 열린 한나눔터 행사 때 각 반은 강당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였다. 1-1은 소떡 꼬지를, 1-2는 떡꼬지를, 1-3은 오뎅과 염통꼬지를, 1-4는 김치전을 주 메뉴로 내놓았다. 1학년 반들은 첫 한나눔터임에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한 요리 솜씨를 선보이며 완판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였다. 2-1은 츄러스를, 2-2는 떠먹는 피자를, 2-3은 밀크 쉐이크를, 2-4는 핫케이크를 주메뉴로 내놓았다. 모든 반의 먹거리가 다양하고 맛있어서 모두 완판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장한석 기자|

한나눔터 경매



한나눔터 당일 오후 2시 경 강당에서 경매가 열렸다. 경매물품으로는 방석, 블록, 아디다스 모자, 국어 문제집, 수학 문제집 세트, 물총, 천연 비누 세트 등의 상품들이 있었다. 최저가는 유삼환 학생의 문집으로, 3000원에 낙찰되었다. 경쟁이 치열했던 농구공은 17000 원에 낙찰되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상품은 배다솜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수학 문제집 세트로, 숨 막히는 경쟁 끝에 70000 원에 낙찰되었다. 와인 두 병이 경매 물품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는 13000원에 낙찰되었다. 부회장 정병근 학생과 문교부 차장 원대한 학생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이번 경매는 재미있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강창화 기자|

한나눔터 도서 판매



12월 21일, 거창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는 12시 10분부터 3시 10분까지 도서 판매가 진행되었다. 가격대는 작년과 동일하게 서적의 상태와 품질에 따라 1000원, 1500원, 2000원으로 나뉘었다. 올해는 유난히 책이 적게 들어와 옷, 벽시계, 청소기, 드라이기 등 다양한 물건들이 함께 판매되었다. 기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도서 판매 행사는 학생들의 훨씬 다양해진 물품 기부로 작년에 비해 더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건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3시부터 시작된 떨이에서는 1000원으로 5권의 책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린 박모양은 8천원으로 책을 11권이나 구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으며 매우 만족해했다.

|김혜민 기자|

1-1 카페 -11 오락실



1-1 카페는 보드게임 중심의 게임 카페였다. 루미 큐브, 다빈치 코드, 러쉬 아워 등의 다양한 보드게임이 준비되어 있었다. 인간 두더지 게임은 많은 사람에게 신선함을 주었고 카페 손님들과 두더지 역할을 바꿔가며 하는 등 다함께 카페를 즐길 수 있었다. 급식체 15초 내에 말하기는 많은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평소 접하기 힘든 VR체험 등으로 1-1 카페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검은 천막을 붙여 실제 타로점의 느낌을 살린 타로는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일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1-1 카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정희성 기자 |

1학년 2반은 한나눔터 시작도 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장식품들로 교실 밖을 꾸밈으로써 지나가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카페의 이름은 '카페이스'로 카페와 페이스를 합친 말임을 알 수 있었고, 1-2의 카페의 컨셉은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1-2 카페는 페이스 페인팅뿐만 아니라 네일아트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인기를 끌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이벤트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준 1-2의 학생들 덕분에 한나눔터는 더욱 축제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다. 카페에서는 음료수를 판매하였는데, 음료수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모두 팔릴 정도로 성황리를 이루었다.

| 안성일 기자 |

1-2 카페 -카페이스



1-3 카페 -HEXAGON CLUB



1-3의 카페 테마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클럽'이었다. 한나눔터 카페에서 클럽을 선보이겠다는 1-3의 의외의 테마 선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교실 전체를 클럽인 것 마냥 꾸밀 뿐만 아니라 천장에 미러볼까지 설치함으로써 보다 더 클럽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끼를 맘껏 뽐낼 수 있었다. 교실 중앙에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구석에는 야광 팔찌 판매와 게임 등의 활동을 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 배치 또한 눈에 두드러지게 돋보였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1-3 카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 김정훈(1-2) 기자 |

1-4는 독특한 '주막'이라는 테마로 '주모랜드'를 열었다. 웨이터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체험은 작명, 떡 빵기, 간단한 게임 등의 4단계 코스로 준비되어 있었다. 4가지 체험을 하면 각각 스탬프를 주며 음료와 간식 등으로 교환해 주었다. 특히 윤시진 학생이 관상을 봐주고 그에 맞게 개명을 해주는 작명소가 가장 인기 있었으며 입소문이 나 거창고 선생님들까지도 와서 작명을 의뢰할 정도였다. 코스 구성으로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체험으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1-4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를 공략한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성공적으로 카페를 마무리하였다.

| 김아정 기자 |

1-4 카페 -주모랜드





제천 화재 사고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제천소방서 소속 출동대가 16시쯤에 도착하였으나, 1층의 차들과 LP가스통 때문에 원활하게 진입하지 못하였다. 건물주는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건물 내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여자 사우나에는 알몸의 여성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문 밖에서 소리만 질렀다. 결국 이날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건물의 방화벽 없는 배선실이 불의 통로가 되었고, 사방이 뚫려 있는 필로티형 건축구조로 인해 1층에서 난 불이 번지는 데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조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드라이비트에 불이 붙어 스티로폼이 녹으며 건물의 입구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 초기에 2층에 사람이 다수 있다는 얘기가 구조대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지하부터 구조 활동을 시작하였고,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기까지 했다. 게다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7분 만에 도착한 소방차는 주민들과 견인차량으로 차를 밀어낸 후에야 건물에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은 더욱 지연되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여탕의 비상구가 목욕용품 수납장으로 가려져있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었고, 탈출구 문은 고장으로 열리지 않아 소방관들 역시 쉽게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층은 상대적으로 탈출하기 쉬운 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생겼다. 반면 비상구를 향해 개방하고 직원이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3층 남성 사우나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가 가장 커던 만큼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 누나, 딸, 여동생, 아내, 언니였던 피해자가 많아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불이 난 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희생자와 통화했다는 증언이 있따라 나온 가운데 서울의 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던 여고생, 검게 그을린 목걸이로 겨우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여고생, 평소에는 불이 난 곳 바로 옆 목욕탕을 이용하다 그날 화재가 일어난 목욕탕을 이용하는 바람에 변을 당한 누군가의 여동생 등 화재 희생자들은 모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가를 적셨다.

한편 소방당국의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느냐는 사람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관들에 대해 서슴지 않고 지나치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화재 참사 당시 소방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에게 제천의용소방대원 470명이 호소문을 내기도 하였다. 소방관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력과 장비, 법규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제천 화재 사건을 '소방의 무능'이라며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 김지윤·안성일 기자 |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은 컴퓨터의 메모리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을 의미하는 코인(Coin)의 합성어, 즉 가상 화폐이다. 쉽게 말해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네이버 캐쉬'와 같이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차이점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손에 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비트코인

코드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는 흔하다. 인터넷 서비스마다 자기만의 가상화폐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싸이월드의 '도토리', '네이버 캐쉬'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크레딧', 카카오의 '초코'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많은 가상화폐들 중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작동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장점 비트코인은 디지털 코인이며 인터넷을 통해 보낼 수 있어, 기존의 다른 통화들과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은행이나 다른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적인 개인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은행이나 다른 대행업체에 비해 아주 저렴하다. 또한 달러화, 유로화 등 바꾸어 통용되고 있어 사용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계좌는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계좌가 동결되거나 독립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또한 없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장점들도 존재하지만,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안전하지만은 않다.

피해 사례 2017년 12월 10일, 한국 비트코인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44% 폭락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11월부터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란 새로운 암호화폐가 탄생한다는 내용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하드포크로 추가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은 25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개발자들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 가상화폐 개발 과정을 영어로 알려왔으나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던 12월 10일, 갑자기 한국어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상한 낌새를 챘던 투자자들이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결과, 이 글을 올린 사람이 현재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은 한 고등학생이 친 사기'라는 소문이 퍼지자 1만 8302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1만 3370달러로 추락했다. 거래소별로 가격이 다 달라 대략 50조~100조 원의 비트코인이 증발했다고 추정된다. 허 균이 진짜 암호화폐 사기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노한 투자자들은 학교에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고등학생 장난에 휘둘려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했던 이 사건은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얼마나 험무한 소문과 광기, 탐욕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순 없다. 비트코인 역시 화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공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소액을 투자하여 거액의 자금을 벌어들은 사례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10일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는 "그날 340억 보유자입니다. 1억씩 10명까지 구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비트코인으로 34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글 게시자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340억이 됐다"라며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의 액수를 인증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어 그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1억원씩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재산을 환원하려 한다."라는 글을 남겼고, 이 글은 SNS 상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며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의 전망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화폐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 최대 4억원을 찍을 것 이다."라며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미래를 내다봤지만, 세계 2위 갑부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추며 투자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나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끝이 매우 처참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비트코인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였다.

| 배민승·김정훈(2) 기자 |

아웃캐스트 (OUTCAST)

지난 12월 30일 6시, 샛별중학교 체육관에서 아웃캐스트 공연이 열렸다. 한나눔터 행사 바로 전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시작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아웃캐스트의 공연을 기다렸다. 공연을 진행한 1학년 이예진, 엄호빈 학생은 구수한 사투리와 재치 있는 사회로 많은 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여성보컬의 아름답고 독특한 음색 뿐만 아니라 랩, 혼성듀오의 수준급 무대로 관객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김소희 학생의 '오르막길'과 송우진, 게스트 윤시형 학생의 '맨 위의 맨 위'를 마지막 공연으로 아웃캐스트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배민승 기자 |



무인

12월 19일 강당에서 3학년 강단비, 꽝혜선 학생의 사회로 유일무이한 댄스동아리 무인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오프닝 공연으로 1학년들이 레드벨벳의 '해피니스'로 막을 올렸고, 차례로 '파라다이스', '마지막처럼'에 맞춰 무대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여유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3학년들의 피카부와 각종 노래를 리믹스한 무대가 이어졌다. 인기있는 노래들을 위주로 한 메들리와 흥겨운 춤으로 관객들을 춤추게 했다. 인기그룹인 wanna one과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3학년들의 뛰어난 사회와 무인의 멋진 무대가 어우러져 한껏 솜씨를 뽐내었다.

| 장한석 기자 |

샤이제스트 (SHYZEST)

샤제 공연은 3학년들의 졸업 공연과 1, 2학년들의 공연으로 각각 2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3학년들의 공연은 12월 18일 6시에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비스트의 '그대에게'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2NE1의 'UGLY', 방탄소년단의 '봄날' 등의 곡들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무대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로 장식하였는데, 모두가 아는 흥겨운 멜로디의 곡을 선정함으로써 모두가 즐길 수 있는장을 마련하였다. 거고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무대였기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가운데 박수와 함께 공연을 마쳤다.

한편 1,2학년들의 공연은 1월 2일 6시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Ariana Grande의 'Santa tell me'로 공연을 시작한 데 이어 이하이의 '1,2,3,4'를 공연하였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호주에서 와서 한 달여간 1-1에 머물렀던 정예린 학생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조민서 학생과 함께 보컬을 맡아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후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블락비의 'Yesterday', 악동뮤지션의 'Crecendo',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를 공연하였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를 보이며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하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빠른 박자의 신나는 곡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조용히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잔잔한 노래도 선보이며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다.

| 김지윤 기자 |



너울막

12월 29일 오후 6시 경, 강당에서 거고 3대 동아리 중 하나인 풍물 동아리 '너울막'의 공연이 있었다. 첫 번째 공연은 임수민 학생 외 세 명의 1학년 여학생들의 난타 공연이었다. 열정적이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 네 학생의 화려한 움직임에 관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두 번째 공연은 너울막 1학년 학생들의 영남 사물로 중간에 가벼운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며 힘차고 신명나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공연은 2학년 학생들의 웃다리 사물로 상쇠 황지민 학생과 부쇠 조유진 학생이 뛰어난 팽과리 실력을 뽐내며 사물놀이의 하이라이트인 짹쇠를 잘 살렸다. 너울막 선배다운 경쾌하고 완성도가 높은 무대였다. 2학년들의 공연을 끝으로 너울막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강창화 기자 |

작년 말에 양홍식 선생님이 주최하신 2017 사진 경시대회,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 대회는 자연과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로 나뉘어 개최되었습니다. 거고에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다들 뛰어난 실력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작품들이 짧은 시간 동안 복도에 전시되었던 것이 아쉬워 학보에 실어보았습니다.

<인문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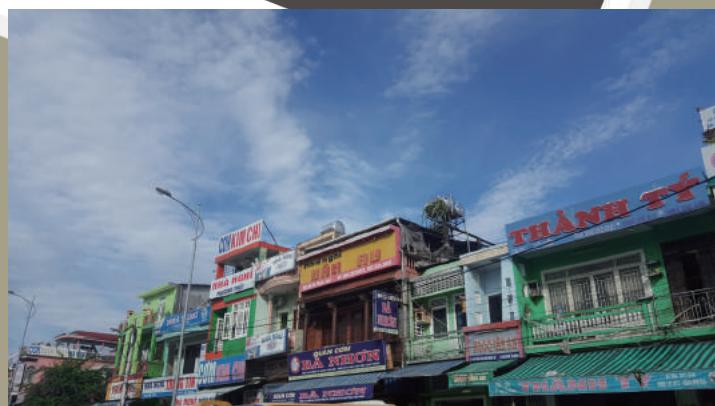
기다리는 사람들 ►
[1132 이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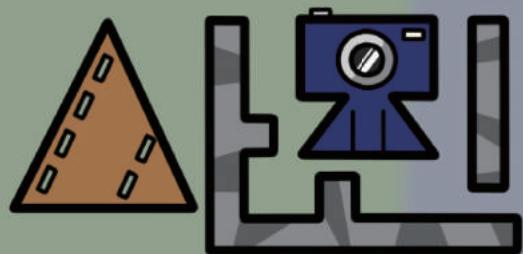
과거 속으로
[1225 김병훈] ▼



다낭 하늘 아래 ▲
[2202 김예진]



순수함 ▲
[2129 여선린]



공모전

<자연과학>



찰나 (刹那)

[2321 강민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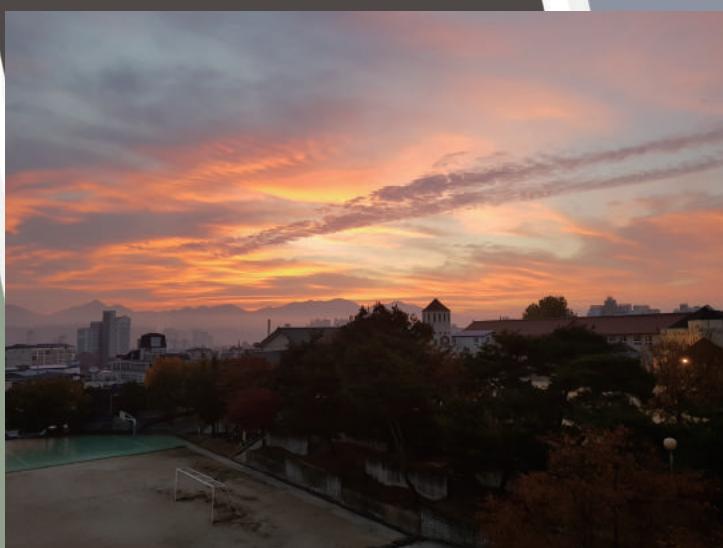
해뜨는 거창고

[2131 이선우]



가시연꽃

[1326 성혁] ▼



상고대

[1132 이휘수]

SHOWME the GEOG



김지윤 : 지윤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친구예요 엄청난 그림 실력을 소유한 지윤이는 그에 걸맞게 학보사 삽화부원이랍니다. 예쁜 학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지윤이의 그림! 지윤이는 삽화부인데이다가 학생회 차장이기에 하루하루가 정말 바빠요ㅠㅠ 한창 일이 많을땐 밤을 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지윤이! 지윤이의 희생이 있기에 예쁜 거고 학보가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내년엔 지윤이가 밤을 새는 날이 더 적어져야 할 텐데요 말이죠..

김정훈 : 정훈이는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언제나 재밌는 말들로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친구랍니다. 또, 삽화를 그리느라 바쁜 파트 걱정까지 해 주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학보사에서는 교정부 일을 맡으며 기사에 오타는 없는지 확인하며 기사를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사가 나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죠. 또, 정훈이는 공부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파트로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창화 : 냉정해 보이는 그녀의 걸모습에 속지마세요!!! 사실은 마음속에 정이 가득한 친구예요. 아닌 듯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창화야 말로 촌데레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촌촌거리는 특유의 말투로 파트와 자주 티격태격 거리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낸답니다^^ 창화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편집 실력은 또 얼마나 뛰어나던지! 그녀의 센스있는 편집이 없었다면 지금의 학보는 꿈도 꿀 수 없었을 정도로 말이죠.

김혜민 : 혜민이는 키가 커요! 그리고 화려한 그림 실력을 가진 삽화부원으로 학보사에서 필수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학보의 퀄리티는 혜민이의 컨디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늘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보 기간만 되면 매우 초췌해지는데요 옆에서 보면 매우 안쓰럽답니다. 회의 시간만 되면 말수가 적어지지만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맡은 일은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는 혜민이... 여유와 느림의 미학을 아는 멋진 친구죠.



김아정 : 1년 동안 파트로 있으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화 한번 내지 않고, 항상 웃어줬던 좋은 친구랍니다. 한 번은 학보사 3학년 선배들의 수능 응원 편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아정이가 모두 기획하고, 준비했어요.(저는 물론 숯가락만 얹었죠~) 그때 작은일이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걸 알게 되었어요. 아정이는 커서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정이라면 훌륭한 검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윤성일 : 만날 때마다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었던 안성일 군은 편집부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유의 미소로 파트인 저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친구랍니다. 성일이는 마냥 웃고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찬 학보사의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한 성일이는 학보사에 없어서는 안될 부원이에요!



배민승 : 자신이 표준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하는 털털한 부산 여자 민승 양은 교정부원이자 이번 스페셜 학보의 임시국장을 맡고 있어요. 평소 잘 웃으며 말도 많은 민승 양은 임시국장으로써 책임감도 있고 학보사를 이끄는 밑음직한 친구랍니다~ 분식 먹으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민승 양. 혼자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는 걸까요?

김정훈 :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둘 도 없는 최고의 파트예요.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는 소울프렌드(?)같은 친구같다고나 할까요? ㅎㅎ 정훈이는 학보사에선 조용한 듯 보여도 활발하고 귀여운 성격의 소유자랍니다. 공부면 공부, 춤이면 춤, 운동이면 운동, 편집실력까지! 정훈이의 편집실력 덕분에 간지나는 학보가 만들어지죠. CA 시간에 3반 창가에 가면 넋놓고 축구를 보는 정훈이를 볼 수 있어요. 축구매니아 정훈이 덕분에 파트는 항상 심심해한답니다. (이번년도엔 안그럴꺼지?) 그래도 항상 파트를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이쁜 친구에요.

정희성 : 희성이는 교정부의 귀요미를 맡고 있어요. 희성이는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에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맙은 일은 엄청난 속도로 잘 해내는 기특한 친구랍니다. 파트도 잘 챙겨주고 장난도 정말 잘 받아줘 같이 있으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이러니 학보사에서 선배, 친구 가릴 것 없이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장한석 : 한석이는 장난기가 참 많은 친구에요. 겉으로는 파트인 저에게 장난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파트를 아끼고 챙겨줘서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받을 때도 있답니다 ㅎㅎ CA 시간마다 파트를 내버려두고 농구를 자주 하러 갔었던 한석!! ㅜㅜ 그래도 이젠 저와 농구하러 가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CA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죠? 2018년 학보사 생활이 정말 기대되네요!!



이 달의 시 한 수 ; 시한수 정도는 음을 줄 알아야 풍류를 즐기는 거고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소?

아밀레이스

밥

심산

엄마에게 혼이 난다
너무 분이 나지만
엄마의 부름에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는다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하다
눈물 덕에 얼추 간도 맞는다

꼭 참아도
그럴수록 더 새어나오는
끓내 불을 타고 내려오는
그 눈물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젓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는다

밥상 가운데에
고기가 있지만

너무너무
먹고싶지만
내 마지막 남은
한 틸의 자존심이
가는 내 손을 막는다

녹말

평소에는 반찬들 때문에,
국 때문에, 찌개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밥의 달콤함을 느낀다

밥, 참 달다

엿당

★ 삽화부원 : 김지윤, 김혜민

★ 교경부원 : 정희성, 배민승, 김정훈(1-2), 장한석

★ 편집부원 : 강창화, 김아정, 김정훈(1-3), 안성일

학보사
거창고



거창고등학교
학보사